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2. 11. 10 (목)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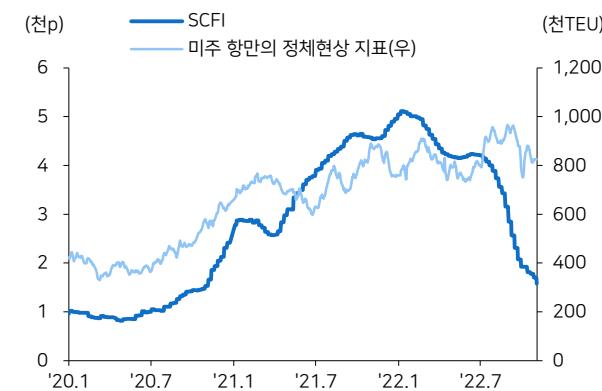
## 건화물운임(BDI)

1,393.0p(+3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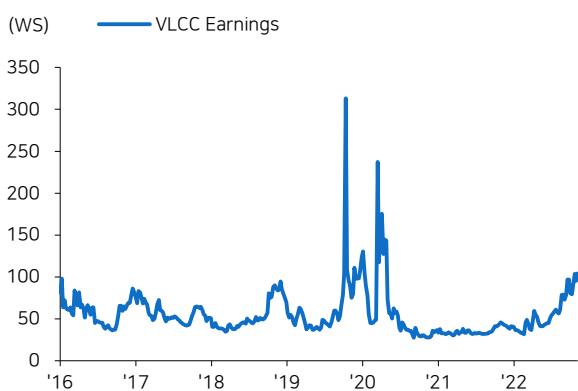
## 컨테이너운임(SCFI)

1,579.2p(-118.4p WoW)



##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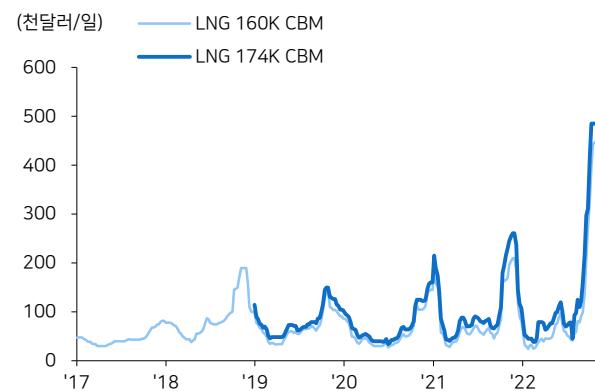
104.4p(+8.8p WoW)



## LNG Spot 운임

447.5p(+0.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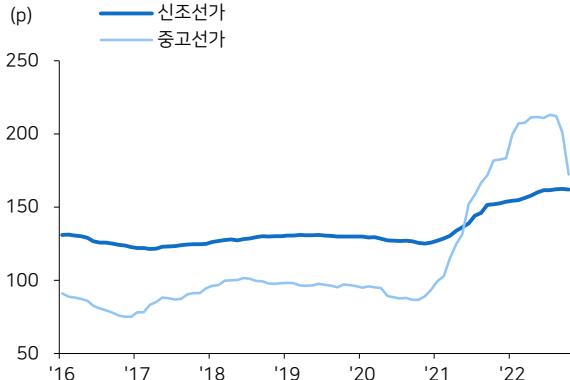
485.0p(+0.0p WoW)



##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5p(-0.5p WoW)

172.2p(-2.7p WoW)



## 항공시장 지표

234.3p(+2.4p DoD)

92.3p(+0.2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CMA CGM will spend another \$1bn on methanol container ships, says Saade

CMA CGM이 최근 6척 발주에 이어 추가 6척의 메탄올추진 neo-panamax급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지난 8월 중국 Dalian Shipbuilding에 15,000TEU급 컨테이너선 6척을 척당 1.75억달러에 발주한 바 있음. CMA CGM CEO인 Saade는 15,000TEU 이상 규모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추가 발주할 것으로 언급함. (Tradewinds)

### Far East yard crisis fuels 'rising fears' over future of container ship newbuilding deals

한국 인력 부족 및 중국의 팬데믹 방역정책으로 2023년 인도선박들이 심각한 지연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됨. 한국 조선소는 리오프닝이 시작된 2021년 중순부터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불로생산 차질을 겪었다고 알려짐. 중국 조선소들은 방역정책으로 인한 봉쇄로 불가항력을 선언한 바 있음. Clarksons는 2023년 선복량 증가율을 7% 이상으로 전망했으나, 인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함. 한편, 컨테이너선은 과도한 공급으로 조선소들은 선주들의 계약취소를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됨. (Tradewinds)

### More Petrobras tenders set to tighten offshore vessel supply elsewhere

브라질 Petrobras의 대규모 해양특수선(OSV) 용선이 시장을 더 타이트할 것으로 보도됨. 해양작업지원선(PSV) 위주로 40척 이상을 용선할 것으로 알려짐. 한 Petrobras의 입찰은 2023년 5~8월 시작으로 4년짜리 계약으로 언급됨. 결국 브라질 외 지역에서도 선박을 모색하게 될 것이고, 특히 타지역의 고사양 선박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명함. (Tradewinds)

### Suriname to offer six offshore blocks in deep-water bid round

Suriname이 2022-23년 6개 deep-water 해상부지 입찰에 나선다고 보도됨. Demerara 2022-2023 입찰로 불림. 국영 Staatsolie는 수심 400~3,500미터에 달하는 부지라고 설명함. 2023년 5월말까지 입찰을 받을 예정임. 약 410억배럴의 원유가 매장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짐. (Upstream)

### 택배용 전기차 전환 의무화 2년 유예 추진

정부가 2023년 4월 시행 예정인 '택배용 화물차의 경유차 사용제한'을 법 개정을 통해 1년 이상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됨. 반도체 수급난으로 전기차 공급이 어려워졌고, 고성능 LPG 차량 출시도 늦어진 데에 기인함. 환경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고성능 LPG 차량의 경우 국산 차량이 2023년 12월 출시 예정으로 알려짐. (디지털타임스)

### 인도, 석유수입 1위 국가는 러시아...오랜 1위 중동·아랍 제쳐

러시아가 인도에 석유를 수출하는 최대 국가로 부상했다고 보도됨. 인도는 그 동안 석유 수입을 이라크와 사우디에 의존해온 바 있음. 러시아 우랄 석유는 2022년 30달러/배럴을 수준이었지만 인도 등의 수입확대로 8일 80달러 수준으로 상승함.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가 97달러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20달러 가까이 낮은 수준임.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은 9월 일일 94.2만배럴에서 10월 97만배럴로 증가했다고 알려짐. (파이낸셜뉴스)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